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모세의 죽음

1 모세는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2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3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 주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5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6 모압 땅 벵브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7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8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세대교체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0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아시고 11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12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3 목상하기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10절). 또한 120살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 또한 쇠하지 않았습니다(7절).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믿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오합지졸인 백성을 힘겹게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고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여호수아에게 기꺼이 넘겨주었습니다(9절). 무엇보다 인생을 다 바쳐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1-5절). 그런 모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평가가 모두 수동태인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11-12). 모세의 인생은 그가 수고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대로만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순종의 삶입니다.

4 적용하기

지금 나의 일상은 내 생각, 내 뜻, 내 꿈이 주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억울하게 물러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모세에 대한 신명기의 마지막 평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 받고 싶나요?
- ②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집부리던 나의 생각, 나의 꿈이 있나요?
내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내 힘, 내 생각, 내 간절한 소원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화요일

20.06.23

▶ 시편 START ◀ 시편 127:1-5

주님 없이는 헛수고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여호와와 도움 없이는 헛수고인 삶

1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 자식은 여호와께 받는 유산

3 자식들은 여호와와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4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5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3 목상하기

집을 짓는다는 것(1절)은 가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헛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 역시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3절). 많은 사람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살아가는 요즘 이 말씀은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고는 모두 헛될 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때에 맞는 물과 햇빛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목상하며 요즘 내가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전력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4 적용하기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의 먹고 마심, 자고 일어남, 만남과 헤어짐의 모든 순간을 비롯해 밤새 공부한 것과 공들인 관계의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되게도 안 되게도 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목표와 과정을 모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 혼자 무던히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께 오늘 무엇을 구할까요?
- ② 요즘 내가 밤낮으로 애쓰고 고민하며 신경 쓰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모든 일의 결과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일상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3 네 아내는 네 집 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네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 이스라엘에 평화를 기원함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6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3 목상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신뢰하며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1절). 그런 사람의 일상은 주님과 함께 걷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흘러넘치는 축복은 자신만이 아닌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후손에게까지 흘러가 축복을 전염시킵니다(3, 5-6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올리브 나무처럼 그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3절).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2절).

4 적용하기

많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만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당장은 잘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일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가정, 학교, 학원, 교회 등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 ② 요즘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의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이스라엘이 당한 억압의 역사

1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2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3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4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

5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6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지붕 위의 풀 같아서 7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8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네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지 않으리라.

3 묵상하기

이스라엘은 항상 많은 강대국의 억압과 침략을 받아왔습니다(1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농부가 밭에 고랑을 만들 듯 그들의 등에 고통의 흔적이 깊이 남을 정도입니다(3절). 그러나 백성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4절).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어떤 악도 번성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6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공격은 이전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신실하신 계획속에서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4 적용하기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악에 대한 바른 대응법을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악한 세상에 똑같이 맞대응하기보다 공의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괴로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 ② 세상의 거센 반박과 괴롭힘, 불이익 속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야 할 나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용서를 구하는 기도

130:1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4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5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6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7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다. 8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다원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여호와를 바라는 기도

131:1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들과 나에게 베푼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2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 떼는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 떼는 아이와 같습니다. 3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3 묵상하기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조차 주저하지만 시인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괴로울지언정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알고 무작정 그분께 매달립니다(3-5절). 그리고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밤을 새는 파수꾼이 간절하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분의 용서를 기다립니다(6절). 나에게도 감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1절)에서부터 느끼는 죄책감이 있다면, 주저 없이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131:1). 엄마의 젖을 달라며 보채던 어린아이가 어느새 자라나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131:2).

4 적용하기

내 마음 깊은 곳에 꾀꾀 숨겨둔 죄악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기도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절절하고 간절한 시인의 기도처럼 괴롭고 힘들지만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의 회개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조차 기도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모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② 혹시 나의 신앙은 젖먹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없는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만 요구하며 보채는 연약한 상태는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 다윗의 맹세를 기억하소서

1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3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4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5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 약속을 지켜 주소서

6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7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8 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의 언약궤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11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네 왕좌에 앉히리라. 12 만약 네 자녀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네 왕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14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라다. 15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16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17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 두었다. 18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의 면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